

현장시선



고영미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언어학박사

파리와 제주를 함께 떠올려보면서 이 두 장소는 공통점이 있을까 꿈곰이 생각해보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며 관광지라는 점이 같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문화와 예술의 현상이 있기 마련이고 파리와 제주에는 이런 유무형의 유산이 숨쉬고 있다. 전승되는 이야기를 만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파리에는 볼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파사주는 숨겨진 작은 보물 또는 가슴 뛰게 하는 웅담샘 같은 장소라 하겠다. 파사주를 우리말로 하자면 오래된 가게,

파리의 파사주, 제주의 칠성로

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이 있는 우아한 골목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파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여러 개의 파사주는 파리지앵들에게는 아늑한 고향길 같은 장소이며 관광객들에게는 뜻밖의 선물 같은 공간이다. 필자 역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매우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다.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의 소설 '나나'의 현장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소설 속 주인공이 드나들었던 인쇄소가 레스토랑-카페로 변신했고 인쇄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역사유적이라는 명예로운 표식을 걸고 있었다. 에스프레소의 향과 에밀 졸라가 연상 기억으로 남아 있다. 문학 속 현상이 보존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0세기 제주 문화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장소로 제주의 칠성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기념석으로 남겨진 동백다

방은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곳을 드나들었던 계몽록 작가로부터 제주출신 김중원 영화평론가가 글쓰기를 배웠고 양중해 교수와 변훈 작곡가의 우정은 가곡 '떠나는 배'를 낳았다. 박목월 시인의 짧았던 제주 생활 역시 문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육지에서 제주를 거쳐 간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이 동백다방이라면 제주지역 언론사에 재직하던 인사들로 북적였던 공간은 남궁다방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칠성로의 20세기 이야기의 현상들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 사진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하다.

파리의 파사주는 18세기와 19세기 이야기를 21세기에도 전승하고 있는 현상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제주의 칠성로는 파리의 파사주보다 더 오래된 역사의 길이면 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한적한 길이 돼버렸다. 제주시 원도심 옛길 탐험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필자는 칠성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진솔하고 기쁨의 표정을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칠성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진솔하고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달래주듯 칠성로의 기억과 추억을 보듬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심지어 다방이 돌아온 것이다. 1970년대 문을 열고 1990년대 문을 닫은 심지어 다방이 심지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동백다방과 남궁다방이 전해주고 있던 칠성로 이야기를 심지가 이어갈 수 있을지 조바심 섞인 기대를 숨길 수 없다. 칠성로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떠나버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히 반짝이고 있는 옛길 칠성로를 돌아가자.

사설

옆친데 덮친 태풍피해 긴급 복구지원 절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제주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건물 지붕이 무너지고 주택지붕도 강풍에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파손 및 농경지 침수, 양식장 시설 붕괴, 정전상태 발생, 이재민 등 전방위적인 피해를 끼쳤습니다.

성산읍 신동리는 주택 5동과 창고 1동, 컨테이너 창고 2동 및 비닐하우스 6동 등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속대밭이 됐습니다. 정전까지 발생해 마을 전체가 암흑에 빠지며 이수리장이 됐습니다. 9세대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성산읍사무소로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구좌초등학교 분관 지붕도 파손돼 교실 2곳과 다목적실, 특별교실이 침수됐습니다. 어린이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번 태풍은 옆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달 두 차례

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미탁이 내습하면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 닥친 세 차례의 가을 태풍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당근, 무 등 밭작물과 감귤 등에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애써 가꾼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될 걱정에 농가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급박할수록 당국의 대응능력이 중요합니다.

우선 긴급피해복구가 필요한 정전까지 발생해 마을 전체가 암흑에 빠지며 이수리장이 됐습니다. 9세대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성산읍사무소로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구좌초등학교 분관 지붕도 파손돼 교실 2곳과 다목적실, 특별교실이 침수됐습니다. 어린이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번 태풍은 옆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달 두 차례

말로만 그치니 폐기물 자원화 이뤄지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폐기물의 자원화가 화두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배출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폐자원 재활용 정책이 허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일한 행정으로 인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폐자원이 비용까지 들이면서 육지로 반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폐필름류 수거 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라면 봉지 등 폐필름류 자원화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도내 발전소에도 정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제유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아스콘 공장의 정제유 사용은 이뤄지

지 않고 있습니다. 남제주화력발전소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했지만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정제유 판로를 확대하지 못한 생산업체는 도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필름류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모든 폐기물을 분리·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나섰습니다. 자원순환사회는 실생활과 산업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문제는 쓰레기 정책이 그때 그때 땀집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판로난에 직면한 폐필름류 재활용 생산업체 사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폐필름류를 도로로 반출하면 정부의 수거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민의 혈세로 반출비용을 충당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자원화 이뤄지나

열린마당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수칙



김동기 제주지방경찰청 보안과 팀장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는 10월에는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즐겁고 안전한 가을 행락철 나들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다. 안전벨트 착용시에는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당기고 어깨 중앙과 골반에 걸쳐서 달라붙는 느낌으로 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버클이 '딸깍' 소리가 나도록 확실히 잠고,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뒷좌석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대열운전 금물이다. 대열운전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다수의 차

량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 데, 대열운전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뒤따르는 일반 차량들은 도로 앞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돼 예상치 못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즐거운 나들이길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열운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 금지다. 가을 행락철에는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며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할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제주경찰청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경찰의 당연한 책무임을 명심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이 넘치고 사랑받는 국가경찰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태풍 피해 국민에 함께 위로와 격려를”

문 대통령, SNS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태풍 '미탁' 피해가 심각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현.

문 대통령은 3일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인명피해가 적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침수 피해로 이재민도 많다”며 “정부는 가능한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재민들을 위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함께 아픔을 겪는 심정으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부미현기자

재활용도움센터 해외서 관심

○...서귀포시가 운영중인 재활용 도움센터에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2일 필리핀 팔라완주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시장 등 일행 14명이 방문해 눈길.

이들 방문단은 동홍동 재활용도움센터를 찾아 센터에 구축된 운

영장비와 배출도유미 운영 등을 살펴보고, 특수시책인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를 현장에서 체험. 시 관계자는 “방문단은 시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주민 부담을 등을 물었고, 시민들이 직접 도움센터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반응이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농협 “방역초소 연장 운영”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확산, 이틀새 3건이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양돈농가 및 행정, 농협도 바짝 긴장.

앞서 제주도와 농협, 축협, 양돈농협 등은 9월 2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주간 금약과 대정 등 4곳에서 ASF 방역통제초소를 운영. 농협 관계자는 “3주간 운영 예정이던 방역 통제초소 운영을 한 달가량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제주양돈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방역 소독 및 석회 보급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 백귀탁기자

부고 김창업(前 신례리 이장) 어머니 동래정씨 지열(향년 79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30일 06시 47분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7일(월) 위미리례회관 ▶발인일: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6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 차: 신례리 가족공동묘지 아 들 김창업 며느리 김금옥 창욱 박정욱 현탁 정근실 딸 김효자 사 위 김주영 효심 안현호 ※연락처: 김창업 010-3692-1068 김금옥 010-2649-1068 김현탁 010-2637-2427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이름짓는집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석사, 철학박사, 역학상담사, 작명사 1급 용산철학관 서귀포시 신희암 송월타을 옆집 박용산 010-4464-3238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